

작품 내용

제 목	웃기다고 주인이 없는 건 아니었다
내 용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의 얼굴을 저장했다. 연예인의 표정, 드라마 속 한 장면, 웹툰 컷, 누군가의 반려동물 사진, 모르는 사람이 올린 기막힌 자막까지. 휴대폰 앨범에는 내가 찍은 사진보다 남이 만든 이미지가 더 많았다. 친구 단톡방에서는 그것들을 ‘짤’이라고 불렀다. 누가 우울하다고 하면 우는 고양이 짤을 보냈고, 누가 과제를 망쳤다고 하면 쓰러진 직장인 짤을 보냈다. 말보다 빨랐고, 설명보다 정확했다. 우리는 자주 웃었다. 그리고 거의 묻지 않았다. 그 짤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그 그림의 원래 작가가 누구인지, 방송 화면을 잘라 올린 사람이 허락을 받았는지. 그런 것은 웃음이 지나간 뒤에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이미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주인이 희미해 보였다. 너무 많이 봐서 모두의 것 같았다. “이거 완전 너다.” 그 한마디와 함께 나는 수많은 이미지를 보냈다. 보내면서 한 번도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훔친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고, 내가 한 일은 너무 가벼워 보였다. 그냥 저장했고, 그냥 보냈고, 그냥 웃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만든 작은 이미지 하나가 나 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별것 아니었다. 친구가 시험기간마다 “공부는 내일부터”라고 말하는 게 웃겨서, 나는 낡은 의자에 앉은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믿음”이라는 문장을 붙였다. 장난삼아 SNS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누군가 공유했고, 또 누군가 저장했고, 어느새 내가 모르는 계정에 같은 이미지가 올라와 있었다. 처음에는 기뻐다. 내가 만든 것이 낯선 사람들을 웃겼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어떤 계정은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로고를 붙였다. 어떤 계정은 그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겠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댓글에 “이거 원래 유명한 밈인데?”라고 썼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유명한 밈. 그 말은 칭찬처럼 보였지만, 내게는 실종신고처럼 들렸다. 내가 그린 선은 남아 있는데, 내가 사라져 있었다. 내가 고른 말은 남아 있는데, 내가 그 말을 고르기까지 웃고 고친 시간이 지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내 그림을 좋아했지만, 그 그림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그동안 보낸 수많은 짤들을 떠올렸다. 웃기다고 저장한 사진들, 출처 없이 퍼 온 그림들, 누군가의 대사를 잘라 만든 이미지들. 나는 그것들을 가볍게 소비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와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이름이 지워진 채 떠도는 일. 사람들이 좋아할수록 더 멀리 사라지는 일.

우리는 가벼운 콘텐츠일수록 더 함부로 대한다. 긴 소설이나 영화, 음반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짧은 짤 하나에는 주인이 없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 컷의 그림에도 손이 있고, 한 장의 사진에도 기다림이 있고, 한 줄의 자막에도 감각이 있다. 웃음은 순식간에 터지지만, 그 웃음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오래 관찰하고, 고치고, 지우고, 다시 만들었을 수 있다.

밈이 된다는 것은 멋진 일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웃고, 같은 감정을 나누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을 한 장의 이미지로 주고받는 일은 분명 문화다. 그러나 문화가 된다는 것이 주인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퍼질수록,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은 더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웃음이 누군가를 지우는 방식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웃음을 막기 위한 규칙이 아니다. 재미있는 것을 혼자만 보라는 명령도 아니다. 저작권은 웃긴 것에도 만든 사람이 있고, 가벼운 것에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약속이다. 공유하고 싶다면 출처를 남기고, 다시 쓰고 싶다면 허락을 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재미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재미를 만든 사람을 함께 보이게 하는 일이다.

내 이미지가 돌아다닌 뒤로, 나는 단톡방에 짤을 보낼 때 가끔 멈춘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찾아본다. 원작자가 표시된 이미지는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그림은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적어도 이제는 안다. 내 손가락이 누르는 저장 버튼 뒤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나는 짤을 좋아한다. 우는 고양이도 좋고, 지친 직장인도 좋고, 말도 안 되게 절묘한 자막도 좋다. 다만 이제는 그 웃음 뒤를 조금 더 본다. 누가 이 장면을 만들었는지, 누가 이 문장을 붙였는지, 누가 이 그림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는지 생각한다.

웃기다고 주인이 없는 건 아니었다.

짤 하나는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누군가의 권리까지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웃으며 공유하는 그 작은 이미지에도, 어쩌면 누군가의 이름과 시간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작고도 분명한 저작권 의식이다.